

일부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B형 간염환자 감염관리에 대한 이론적지식과 임상감염관리 실천도의 관련성

김한나* · 배성숙** · 노희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 ***강원대학교 한방보건복지대학 치위생학과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infection control behavior about Hepatitis B patient in health care-related majors

Han-Na Kim* · Sung-Suk Bae** · Hie-Jin Noh***†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anseo Universi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Public Health & Welfar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infection control behavior about Hepatitis B patient in health care-related majors.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health care related majors-nursing, emergency rescue and dental hygiene with questionnaire. Total respondents were 306 and we use all of them. We analysed students' knowledge and infection control behavior about Hepatitis B patient and their relationship. Uni-variate analysis, t-test,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test were conducted using SAS version 9.2.

Results: Students who go the Hepatitis B lecture were significantly high Knowledge level about Hepatitis B ($p < .05$). Students who go to clinical education about Hepatitis B were significantly better behavior about infection control in clinical practice ($p < .05$).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bout Hepatitis B and infection control in clinical practice was significantly negative ($p < .05$).

Conclusions: It needs to be educated both infection control lectures and clinical practice to health care-related majors to prevent cross-infection between patients and health care providers.

Key words: Dental Hygiene, Emergency rescue, Nursing, Hepatitis B, Infection control

접수일: 2012년 3월 28일, 수정일: 2012년 4월 12일, 채택일: 2012년 4월 16일
† 교신저자: 노희진 (200-70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황조길 346)
Tel: 033-540-3392, Fax: 033-540-3399, E-mail: nohh@kangwon.ac.kr

I. 서론

만성 B형 간염은 간경변 및 간암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여 2010년 통계청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13.8명이 간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21.7명으로 여성(5.9명)의 약 3.5배에 달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아지고 있다(통계청, 2010). HBV에 대한 감염은 우리나라 국민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은 1998년 4.6%에서 2009년 3.2%로 감소하였으나, 40대 남성에서 5.8%로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다(보건복지부, 2009).

B형 간염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피부, 체액, 혈액, 타액 등 다양한 형태로 전염된다. 특히 병원의 진료실은 대상자의 혈액과 타액 등 다양한 체액이 노출되기 쉬운 공간으로 환자와 환자간, 그리고 환자와 술자간 감염이 일어나기 매우 쉬운 장소 중 하나이다.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졸업 후 임상에서 다양한 질환에 이환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환자의 진료에 참여하게 되고, 전공 영역별로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상에서 감염관리 행동은 대학생 시기 임상실습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고 이때 만들어진 습관은 이후 전문가로서 근무할 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되었다.

간호사는 수술실과 외래, 그리고 병실 등에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타액과 혈액, 그리고 다양한 체액에 노출된다. 치과위생사는 주로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의 구강질환의 처치에 참여하게 되며, 주로 타액과 혈액에 노출이 빈번이 일어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응급치료사의 경우 응급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초기 처치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혈액과 타액, 그리고, 체액에 노출되는 직종이다. 따라서, 세 직종

모두 환자에 대한 감염관리원칙준수가 술자와 환자 그리고, 제 3의 환자에 대한 교차감염 예방을 신중히 고려해야하는 집단이다.

지금까지 B형 간염 관련 연구는 주로 보건의료계열 학생들 또는 일반계열 학생들의 B형 간염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조사한 경우가 있었다(김정숙, 2008; 정기옥 등, 2009). 송경희(2003)는 대학생들의 보건교육수혜에 따른 지식을 평가하였으며, 남상미(2011)는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김귀란과 최의순(2005)은 간호학과 학생의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를 비교연구 한 바 있으나, 구체적 질환에 대한 지식정도에 따른 감염관리 행위의 실천도를 비교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특히, 여러 보건계열학과 학생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수준과 감염관리 행동수준을 학과별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드문 현실이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학과 학생들이 대표적 바이러스성 질환의 하나인 B형 간염에 대한 지식정도를 교육기관, 학과, 학년별로 평가하고 지식 정도에 따른 감염관리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소재 일개 대학교 보건계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19일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간염에 대한 지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희정(2008)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개발된 설문문항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보건계열학과(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치위생학과) 3학년과 4학년 학생 3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변수

간염에 대한 지식과 행태는 간염 관련 이론교육여부, 임상에서의 간염환자에 대한 감염관리교육, 교육 후 인식 및 행동의 변화에 해당하는 문항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추후 분석을 위해 감염관리 교육 후 인식 및 행동의 변화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있음'으로, '보통이다'는 '보통'으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없음'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간염의 지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서는 간염의 전과경로, 증상, 예방접종 및 간염환자에 대한 감염관리법 등 17개의 문항에 대하여 본인의 지식으로 판단하여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정답을 선택한 경우 '1'로 오답으로 응답하거나 '모르겠다'를 선택한 경우는 '0'으로 변환하여 각 17개 문항을 합한 전체 17점 만점에 대한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염에 대한 감염관리의 자기실천도 문항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실제 임상에서 실천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문항에 본인의 실천 정도를 답하도록 하였다. 실천도 평가 문항은 '간염환자의 진료에 사용된 기구의 세척', '환자 진료 후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이 묻은 진료실 내 장비소독',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이 묻은 감염성 폐기물의 분리',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분리 배출'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항상 지킨다'는 4점, '잘 지키는 편이다'는 3점, '보통이다'는 2점, '잘 지키지 않는다'는 1점,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0점으로 하여 각 문항의 평균값(4점 만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통계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간염에 대한 교육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문항에 따라 선행문항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만 응답하도

록 질문하여 응답자 수의 변동이 있었다(표 2). 간염에 대한 지식정도와 감염관리의 자기실천도를 학년별, 학과별, 이론교육 유무별, 임상교육 유무별로 나누어 알아보기 위해 SAS의 t-검정과 분산분석법(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하였다. 간염에 대한 이론적 지식정도와 감염관리에 대한 자기실천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법(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 평가의 기준은 유의수준 0.05로 하였고 모든 통계분석은 SAS 9.2 version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은 보건의료계열 대학생 306명 중에서 여성이 89.22%, 남성이 10.78%로 구성되어 있었다. 20~25세 연령이 95.71%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가 38.89%, 응급의료학과가 24.18%, 치위생학과가 36.93%였고 3학년(60.46%)이 4학년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33	10.78
	여자	273	89.22
연령	20~25세	293	95.71
	26세 이상	13	4.29
학과	간호	119	38.89
	응급	74	24.18
	치위생	113	36.93
학년	3학년	185	60.46
	4학년	121	39.54
임상실습 경험	있다	288	94.12
	없다	18	5.88
계		306	100

(39.54%) 보다 많았다. 전체의 94.12%가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

2. 간염관련 교육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B형 간염관련 교육 여부는 아래와 같다<표 2>. 대부분의 학생(83%)이 간염에 대한 이론 교육 경험이 있었다. 이론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교육 장소로는 상당수가 학교(90.94%)에서 교육으로 받았고 다음으로는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5.12%)이었다. 임상에서 간염환자의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학생(56.21%)들이 받지 않은 학생(43.79%)들 보다 많았다. 임상적 감염교육을 받은 장소는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이 57.55%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가 37.21%로 그 다음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기관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매우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간염에 대한 감염관리교육을 받은 후 인식의 변화에서는‘그렇다’로 응답한 학생이 17.72%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61.41%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염에 대한 감염관리교육을 받은 후 행동의 변화에서는 ‘그렇다’로 응답한 학생이 70.08%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이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인식이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원인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이거나, 교육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가능성 등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학과별, 학년별, 이론교육, 임상 경험에 따른 B형 간염지식 정도와 감염관리의 자기실천도

간염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표 2> 간염관련 감염관리 교육 여부

변수	범위	빈도(N)	백분율(%)
이론적 교육경험 (N=306)	있음	254	83
	없음	52	17
이론적 교육기관 (N=254)	의료기관	13	5.12
	보건소	4	1.57
	학교	231	90.94
	기타	6	2.36
임상적 교육경험 (N=306)	있음	172	56.21
	없음	134	43.79
임상적 교육기관 (N=172)	의료기관	99	57.55
	보건소	2	1.16
	학교	64	37.21
	기타	7	4.07
교육 후 인식변화 (N=254)	있음	45	17.72
	보통	53	20.87
	없음	156	61.41
교육 후 행동변화 (N=254)	있음	178	70.08
	보통	59	23.23
	없음	17	6.69

각 17개 문항을 1점으로 하여 정답 유무에 따라 '1'점 또는 '0점'으로 전체 문항의 평균을 17점으로 보았을 때, 4학년이 11.18점으로 3학년 10.69점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과별로 간염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간호학과가 11.82점으로 가장 높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간염과 관련된 이론 교육을 받은 학생은 11.25점으로 이론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9.08점에 비하여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5$). 임상에서의 교육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교육을 받은 학생이 11.01점으로 임상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10.72점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임상

에서 교육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일부 설명한다.

임상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자기실천도 평가는 전체 4점 만점에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학년별로는 4학년이 2.52점으로 3학년 2.33점에 비하여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과별로는 치위생학과가 3.56점으로 타학과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p < .05$). 임상교육을 받은 경우 2.63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p < .05$) <표 3>.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간염에 대한 이론적 지식수준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상감염관리 자기실천도는 가장 낮은 것으

<표 3> 학년별, 학과별, 이론교육과 임상교육 유무별 B형 간염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임상감염관리 자기실천도

변수	범위	빈도(N)	평균(Mean)	t Value	Pr > t
간염에 대한 이론적 지식 (17점)					
학년	3학년	185	10.69	-1.76	0.0788
	4학년	121	11.18		
학과	간호	119	11.82	30.86	<.0001
	응급	73	9.26		
	치위생	113	10.96		
이론교육유무	유	254	11.25	-5.08	<.0001
	무	52	9.08		
임상교육유무	유	172	11.01	-0.99	0.321
	무	134	10.72		
간염에 대한 임상감염관리 자기실천도 (4점)					
학년	3학년	185	2.33	-1.06	0.2898
	4학년	121	2.52		
학과	간호	119	0.72	523.63	<.0001
	응급	73	3.36		
	치위생	113	3.56		
이론교육유무	유	254	2.36	1.27	0.2049
	무	52	2.65		
임상교육유무	유	172	2.64	-2.97	0.0032
	무	134	2.12		

Result of t-test and ANOVA(Analysis Of Variance)

<표 4> B형 간염의 지식 정도와 임상감염관리 자기실천도 간의 상관관계

		임상감염관리 자기 실천도		
		상관계수	Prob > r	
간염의 지식정도	학년	3학년	-0.24066	0.001
		4학년	-0.15137	0.0974
	학과	간호	-0.04575	0.6213
		응급	0.31523	0.0062
		치위생	0.19318	0.0404
전체			-0.19946	0.000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로 조사되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B형 간염의 지식정도와 임상감염관리의 자기 실천도의 관련성

B형 간염에 대한 이론적 지식정도(17점)와 감염관리에 대한 자기실천도평가(4점)간의 상관성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B형 간염에 대한 이론적 지식정도와 감염관리의 자기실천도 간에서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0.19946)가 있었다. 학년별로는 3학년(-0.24066)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과별로는 응급의료학과와 치위생학과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5$) <표 4>.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우 간염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임상감염관리의 자기실천도에서 음의 관련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IV. 고찰

사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술자 간 또는 환자와 환자간 교차감염을 예방하고, 멸균상태를 유지하는 진료로 원하지 않는 세균 등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염관리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교육 중

하나이다. 미국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에서는 의료진의 감염관리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공지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여 보건정책에 반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이후로 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병원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등을 통하여 외래 및 병실 환자의 감염관리 규칙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병원에서 감염관리실을 따로 설치하여 진료실과 병실 등에서 표준화된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있다(배성숙과 이명선, 2011; 박정호와 윤혜상 1986).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감염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게 될 보건계열 학생들이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대표적 질환 중 하나이다. 보건의료계열 대학생과 비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B형 간염에 대한 지식과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비보건의료계열 대학생에 비해 지식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에 B형 간염에 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정기옥과 김주영, 2009).

본 연구를 통하여 보건의료계열학생들의 간염에 대한 이론적 교육과 임상에서의 감염관리 교

육의 시행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연구대상 중 83%의 학생이 이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이론교육기관은 대부분이 학교로 조사되었다. 이론교육을 받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간염에 대한 지식수준이 약 2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나, 임상교육 유무에 따른 간염에 대한 이론적 지식수준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p < .05$).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우 간염에 대한 이론적 지식수준이 17점 만점에서 11.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위생학과 10.96점, 응급의학과 9.26점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5$) <표 2, 3>. 학과별 지식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주로 직종별로 환자케어에 대한 접근방법과 관심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교육내용과 시간에도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간염에 대한 감염관리 임상교육을 받은 학생은 56.21%로 이론교육을 받은 학생 수(83%)에 비하여 다소 적은 편이었다. 감염관리에 대한 임상교육기관으로는 대부분 학교로 응답한 이론교육과 달리 주로 의료기관이 57.55%로 가장 많았고, 학교가 37.21%로 그 뒤를 이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감염관리 이론교육을 받은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임상진료 내용에서 감염관리 원칙에 보다 충실 하다고 조사되었던 바 있다(남상미, 2011; 김지현과 김진경, 2011)(6,11). 그러나, 본 연구결과, B형 간염환자에 대한 임상실습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자기실천도(4점 만점)를 살펴본 결과 이론교육을 받은 학생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론적 교육을 받은 학생집단 2.36점 보다 이론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자기실천도가 2.65점으로 더욱 높은 점수를 보여 기존 연구결과와 달랐다. 한편, 간염환자의 감염관리

에 대한 임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감염관리의 자기실천도에서 2.64점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 2.12점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5$) <표 2, 3>. 본 연구를 통하여 그 이유를 파악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받았던 이론교육의 내용이 임상실습에서 필요한 감염관리방법이 아닌 간염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내용이었다면, 감염관리행동과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임상기관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은 연구대상 중 56.21%로 높지 않은 수준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보건의료계열학과 중 학내 병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대학의 경우 대부분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그 교육내용이 학교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임상교육보다는 진료 중심의 환경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본질적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김윤미 등, 2011; 이미선과 김수화, 2011; 김재선, 2007).

병·의원 환자진료에서 감염관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수준과 행동수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있다(Singh 등, 2011; 김귀란과 최의순, 2005). 본 연구결과 간염에 대한 이론적 지식정도 와 임상에서 감염관리의 자기실천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음의 관련성이 검토되었고, 응급의학과와 치위생학과 학생의 경우 양의 관련성이 검토되었다($p < .05$). 감염관리에 대한 자기실천도 항목은 기구의 세척, 멸균, 장비소독, 쓰레기 처리, 주사바늘 분리 등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네가지 항목으로 전공학과의 실습내용과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도 있어 학과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서길준, 2007).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지식수준과 임상감염관리의 자기실천도가 음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었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우 이론적 지식수준이 보건계열 세 개 학과 중 가장 높았으나, 임상감염관리 실천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특이한 결과가 검토되었다. 김귀란과 최의순(2005)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학과 학생들의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를 살펴 본 결과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기도 일개 대학의 3개 보건의료계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B형 간염에 대한 이론적 지식정도와 임상감염관리에 대한 자기실천도를 알아본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단지 3학년과 4학년 두개 학년, 세 개 학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열학과 학생들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화 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학생들의 임상감염관리 자기실천도의 경우, 일반적인 네 가지 항목만을 평가하여 간호학과, 응급의학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각각 서로 다른 임상환경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의 임상에서 감염관리 행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계열별 간염에 대한 이론적 지식정도와 임상감염관리 행태를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Askarian 등(2006)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전염경로와 감염관리에 대한 긍정적태도 보다는 실제 감염관리방법에 대한 구체적 교육이 적절한 감염관리 행동을 유발하고 실천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임상에서 감염관리 행동은 환자와 술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임상가의 윤리적이고 기본적인 행동이다. 대학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이론과 태도, 그리고 임상감염관리 가이드라인

을 이용한 실무 등 복합적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건의료계열학과 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임상감염관리교육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부 대학교의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보건계열 학생들의 B형 간염의 교육유무, 지식정도, 실제 감염관리실천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보건의료계열학과 학생들을 위한 감염관리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보건의료계열학과 학생들의 간염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천도는 치위생학과와 응급의학과 학생들에서 양의 관련성이 검토되었다($p < .05$). 간염과 관련된 이론교육을 받은 학생은 간염에 대한 이론적 지식수준이 높았지만, 임상실습에서의 감염관리행동과 의미있는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간염과 관련된 임상교육을 받은 학생은 보다 적극적으로 임상감염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 < .05$). 대학에서 보건의료계열학과 학생들에게 전염성 질환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임상 감염관리교육이 병행된다면 보건의료계열학과 학생들의 효과적인 감염관리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귀란, 최의순.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간호학생의 인지도와 수행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5;11(3):232-240.
2. 김윤미 외 11명. 간호학생의 여성건강간호학 임상실습경험 및 만족도 조사. 여성간호학회지, 2011;17(3):225-242.

3. 김정숙, 최미혜, 강은주. 치과위생사와 치위생과 학생의 B형 간염에 대한 지식과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8;8(4):233-923.
4. 김지현, 김진경.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교육 경험에 따른 감염관리. 한국치위생학회지(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11;11(4):547-556.
5. 김재선. 병원입상실습효과의 분석을 통한 응급구조사 현장 업무 능력 향상 방안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2007.
6. 남상미.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실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11;11(1):135-146.
7. 박정호, 윤혜상.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간호학논문집, 1986;1(1):13-21.
8. 보건복지부. 2009 국민건강통계. 2009.
9. 배성숙, 이명선. 효과적인 치과병원 감염관리의 구성요소에 대한 고찰. 한국치위생학회지(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11;11(4):557-569.
10. 서길준.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임상실습 가이드라인의 수립.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2007.
11. 송경희. 일부 대학생들의 보건교육 수혜에 따른 B형 간염 및 AIDS에 관한 지식도(2). 한국위생과학회지. 2003;9(2):137-145.
12. 이미선, 김수화. 임상실습이 치위생 전공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학회지. 2011;11(2):189-196.
13. 정기옥, 김주영. 보건계열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B형 간염에 대한 지식과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9;9(2):1-16.
14. 조희정. 대학생들의 B형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5. 통계청. 2010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database on the Internet]. 2010 [cited 2012.2.2].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16. Askarian M, Aramesh K, Palenik CJ.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toward contact isolation precautions among medical students in Shiraz, Iran. Am J Infect Control. Nov. 2006;34(9):593-6.
17. Center for Disease Control.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cited 2012;2.17]. Available from: <http://www.cdc.gov/hai/>.
18. Singh, A., Purohit, B. M., Bhambal, A., Saxena, S., Gupta, A.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 regarding infection control measures among dental students in Central India. J Dent Educ 75(3):421-427.